



2001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부 대리)

1. 2001년 국내 경제동향

21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신사년도 어느덧 저물어 역사의 한페이지로 사라질 때가 가까웠다. 금년을 뒤돌아보면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연초에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부시가 취임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스위스, 이란, 몽고 등 세계 곳곳이 폭설과 폭우, 한파가 심상치 않은 한해를 예고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병원노조의 파업, 언론사 세무고발 등의 사건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으나 9월에 발생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비행기 자살테러 사건은 세계가 경악할 만한 유사 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약 5,000여명이 희생된 이번 테러로 인명과 재산 뿐만 아니라 회복의 조짐을 보이던 세계 경제도 함께 테러를 당한 꼴이 되었다.

국내경제는 '98년 8월을 저점으로 하여 '99년 10.9%, 전년에는 8.8% 성장하는 등 빠른 경기회복을 경험하였지만 전년 연말 IT 거품붕괴 이후 가속화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반도체가격 폭락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또한 미국 테러사태와 대테러 전쟁으로 추가적인 위축을 가져와 연간 전체로는 작년에 비해 6.4% 포인트 감소한 2.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소비지출은 공공부문 소비가 0.8% 감소하고

민간소비도 1.9% 증가에 그치는 등 금년 하반기의 둔화추세가 반영되어 전년의 6.2% 보다 낮은 1.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는 수출 및 경기의 위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상존으로 8.6%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전년의 -4.1%에서 금년은 금리하락, 주택건설관련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1.7% 정도 증가가 예상되거나 총고정자본 형성은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9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3.2%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금년에도 경기둔화, 농산물가격 하락,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환율의 하향 안정화 등으로 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행사가 많은 한해로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동안 도입된 제도의 정착에 주력하여야 하며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매진해온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중장기적 체질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계하여야 할 때이다.

아울러 그동안 심화된 계층간·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의 해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산업간의 경기가 양극화되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의 부양을 위한 정책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2. 2001년 국내 건설동향

금년은 건설투자가 2000년까지 3년동안 계속되던 하락세에서 벗어나 1/4분기부터 1.4% 증가하는 등 건설업이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한해였다.

특히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위축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정부의 임대사업 지원 정책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전세가 및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일조권 확보 등의 건축기준 강화를 앞두고 대거 건축에 나서면서 건축허가의 경우 다가구 159.3%, 다세대 223.6%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타산업의 회복세 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경기양극화 현상도 제조업의 부진과 건설업의 반등세로 어느정도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협회가 전망한 금년도 건설계약액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25조 4,7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부문은 전년에 33.0% 증가한데다 경기부진이 민자사업을 위축시켜 이는 토목부문 부진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2.2% 감소한 34조 7,300억원에 머물러 민간과 공공을 합쳐 60조 2,000억원으로 이는 전년의 60조 1,522억원 보다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허가면적이 금년 5월부터 다시 증가 국면으로 바뀌었다. 금년의 전년대비 건축허가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2.7% 증가하였으나 2월 -4.8%, 3월 -29.5%, 4월 -17.6% 감소를 보였고 5월들어 56.0%, 6월 51.0%, 7월 27.1%, 8월 7.0%, 9월의 30.6%, 10월 28.7%의 증가를 이어가고 있어 1~10월 누계치로는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하였다.(<표-1>)

특히 6~10월의 면적은 '97년 동기간 44,835천㎡ 수준인 44,716천㎡(99.7%)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 주었다.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거용과 상업용이 저금리 기조 유지, 주택가격 상승 및 임대수요의 증가 등으로 10월까지 각각 8.6%, 26.8% 늘어났으며 공업용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면적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7%의 증가를 보였으나 문교사회용 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조기발주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예산확보가 어

<표-1> 2001년 건축허가 실적

(단위 : 천㎡, %)

구분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0월	
						2001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62,677	31,156	44,606	41,283	36,995	108.6
	상업용	27,918	8,753	11,746	18,882	20,006	126.8
	공업용	8,796	2,796	7,824	11,646	11,420	110.7
	문교사회	6,603	3,983	4,478	5,126	4,398	101.0
	기타	7,380	4,277	3,880	4,122	3,860	114.9
구조별	철골조	104,214	46,701	66,192	75,292	71,511	113.5
	조적조	5,105	1,889	2,340	2,056	1,802	100.9
	목조	173	113	142	178	157	119.1
	기타	3,882	2,262	3,860	3,533	3,209	106.5
합계	113,374	50,965	72,534	81,059	76,679	112.9	

* 자료 : 건설교통부.

〈표-2〉 2001년 건축착공실적

(단위 : 천㎡, %)

구분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0월	
						전년대비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34,428	14,568	24,537	26,730	27,173	130.2
	상업용	21,800	7,830	10,566	14,109	16,549	143.5
	공업용	8,014	2,942	7,273	10,126	7,672	90.9
	기타	10,491	7,046	7,077	6,875	6,333	113.1
구조별	철골조		27,378	43,001	52,682	52,841	124.9
	조적조		2,127	2,478	1,751	1,678	113.3
	목조		137	167	120	84	98.2
	기타		2,744	3,807	3,287	3,123	122.4
합계		74,733	32,386	49,453	57,840	57,726	124.3

※ 자료 : 건설교통부.

주) '97년 구조별은 자료 미비로 미계제.

려위 학교시설, 관공서 등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허가실적과 같이 발표하는 건설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근접한 건설동행지수인 건축착공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건축허가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몇가지 부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2〉)

먼저 용도별에서 공업용의 경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보다 10.7% 증가하였으나 건축착공면적은 9.1% 감소하여 착공으로의 실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별에서는 목조의 건축허가가 19.1% 증가한데 비해 건축착공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건축허가면적이 2000년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반하여 건축착공면적은 이보다 2개월 앞선 8월부터 감소로 돌아서 건설경기의 부진을 건축허가보다 앞서 예고하였다.

아울러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2001년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총수주액은 33조 4,4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으나 '97년 동기와 대비할 경우에는 32.4% 감소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착공과는 달리 수

주년에 허덕이는 건설경기의 부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표-3〉)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10조 4,209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한데 비해 민간부문은 20조 9,074억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11조 1,857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나 건축공사가 22조 1,451억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여 예년의 민간·건축강세, 공공·토목 약세의 구도가 지속되었으나 증감울만을 보면 공공·토목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민간·건축은 감소하여 공공부문의 토목공사가 건설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면적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전년 9월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금년 3월까지 이어지고 4월을 기점으로 5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6월과 8월은 전년에 급등한데 따른 반사효과로 오히려 감소하여 10월까지 누계로는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9월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말까지는 전년의 41조 7,775억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97년의 62조 7,215억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표-3〉 2001년 건설수주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0월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공	265,197	208,323	143,876	131,226	104,209	112.6
	민간	325,482	138,021	209,431	259,190	209,074	94.3
	제조업	54,438	12,665	18,928	28,595	20,867	99.1
	비제조업	271,044	125,356	190,503	230,595	188,207	93.8
	국내외국기관	715	1,008	1,276	914	1,065	116.5
	민자	35,821	12,917	8,409	26,445	20,109	109.0
공사종류별	건축	348,359	167,977	224,545	272,847	221,451	98.0
	주택	201,871	109,015	174,017	200,312	158,558	89.9
	비주택	146,488	58,962	50,528	72,535	62,893	126.7
	토목	275,689	190,971	136,526	143,536	111,857	105.1
	전문공사	3,167	1,321	1,921	1,392	1,149	103.1
	합계	627,215	360,269	362,992	417,775	334,457	100.3

* 자료 : 통계청.

* 주 : 건설교통부 장관 면허업체중 기상실적 상위 292개 업체 실적.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수

건설의 주요 기초자재인 시멘트는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또한 건설공사의 환경에 속하는 기상여건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기와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건설투자를 예로 볼 때 금년의 예상액 70조 3,060억원은 '97년 89조 2,848억원의 78.7% 수준으로 시멘트 내수 또한 지난 '97년을 정점으로 '98년 27.8% 감소한 후 '99년 0.2% 2000년 7.3%에서 금년에는 약 4%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97년의 81.0%에 머물러 건설투자의 부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기의 경우 평년 연강수량이 1,400mm 정도이고 연중 2~3개의 태풍이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나 금년의 경우 11월까지 1,370mm(서울 기준)로 7~8월의 강수량 950mm를 제외하면 연중 맑고 건조한 날

씨가 지속되었고 금년중 발생한 24개의 태풍 가운데 단 한개의 영향도 받지 않아 일기 조건은 양호했다고 볼 수 있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6.4%, 2/4분기 3.0%, 3/4분기 19.6%, 4/4분기 -1.0%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4.2% 늘어난 50,000천톤이 기대된다.(<표-4>)

한편 11월까지의 업체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2%대의 증가를 보였으며 고려, 한국, 대한은 두자릿 수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대한은 30%가 넘는 호조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가원인은 고려와 한국, 대한 모두 슬래그시멘트를 위주로 생산, 출하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전체내수에서 슬래그시멘트의 출하구성비가 10.6%이던 것이 금년 11월까지 11.0%로 증가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과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힘입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의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약 947kg으로 전

〈표-4〉 2001년 시멘트 수급 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4 분기	7,541 (93.6)	717	8,258	8,302 (91.8)	155	8,457	1,495
2/4 분기	14,982 (103.0)	1,024	16,006	15,603 (101.4)	299	15,902	1,391
상 반 기	22,523 (99.6)	1,741	24,264	23,905 (97.9)	454	24,359	
3/4 분기	13,583 (119.6)	664	14,247	13,766 (113.7)	263	14,029	1,173
4/4 분기	13,894 (99.0)	611	14,505	14,229 (96.6)	273	14,502	1,169
하 반 기	27,477 (108.2)	1,275	28,752	27,995 (104.3)	536	28,531	
합 계	50,000 (104.2)	3,016	53,016	51,900 (101.3)	990	52,890	

* 주 : 12월은 추정치, 크링카 수출 1,714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년의 979kg 보다 32kg 줄어들었으나 일본 558kg, 대만 857kg, 이스라엘 849kg (99년 기준)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1) 계절별 출하실적

중위도에 자리잡아 4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는 우리나라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면서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가 있고 겨울에는 대설이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기후의 특성으로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비수기가 되어 일기의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건설

의 주요자재인 시멘트도 이러한 기후의 특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 성·비수기의 구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이에 훨씬 밑도는 6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9~11월이 연중 성수기를 이루며 7월, 8월,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5〉)

한편 2001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를 살펴보면 1/4분기 15.1%, 2/4분기 29.9%, 3/4분기 27.2%,

〈표-5〉 최근 10년간(1992년~2001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출하비

구 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3.7	58.8	106.3	72.9	117.3	117.4	112.9	115.9	94.4	98.8	98.0	104.9	100.6	117.3	115.9	98.8	110.6	105.6
구성비	4.5	4.9	8.8	18.2	9.8	9.8	9.4	29.0	47.2	8.2	8.2	8.7	25.1	9.8	9.7	8.2	27.7	52.8

4/4분기 27.8%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5.0%, 하반기 55.0%로 각각 22,523천톤, 27,477천톤을 출하하여 하반기가 4,954천톤 더 많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상하반기 구성비인 47.2%, 52.8% 보다 하반기가 2.2% 늘어난 형태로 1월이 몇십년만의 강추위와 폭설로 전년보다 41.3% 감소하여 1/4분기의 내수가 예년의 18.2%에 훨씬 못미치는 등 부진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시멘트 국내출하를 먼저 수요부문별로 보면 10월까지 민수가 전체 40,312천톤중 39,686천톤으로 98.4%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1.6%인 626천톤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의 민수 97.6% 보다 0.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민수 비중이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2000년의 97.8% 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전인 '91년의 92.7%와 비교하면 민수가 5.7%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민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은 공공공사의 자체 수급이 건설회사가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따른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5,684천톤으로

88.5%로 파악되어 전년동기의 88.8% 보다 0.3%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연말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전년의 수준인 88.9%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벌크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형,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되고 최근의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슬럼프치를 상향하는 등 품질향상에 주력하였기 때문으로 일본의 경우 '80년에 88.4%의 벌크화율을 보이고 지속적인 벌크화율 상승으로 2000년에는 벌크화율이 95.0%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벌크화율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표-6〉)

나. 생 산

금년의 크링카와 시멘트 생산은 각각 47,400천톤, 51,9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각각 3.7%, 1.3% 신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크링카의 생산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7,926천톤 -5.0%, 2/4분기 13,841천톤 4.8%, 3/4분기 12,588천톤 11.1%, 4/4분기 13,045천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보여 3/4분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76.6%에 그칠 것으로 보여 '96년 92.5%, '97년 94.7%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무르나 전년의 73.9% 보다는 소폭 상승할

〈표-6〉 2001년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0월	전년대비	
수요별	민 수	60,321	43,053	42,957	46,930	39,686	104.1
	관 수	1,431	1,562	1,764	1,070	626	67.9
	민수비중	97.7	96.5	96.1	97.8	98.4	
품종별	포 장	8,422	5,576	5,417	5,313	4,628	105.6
	벌 크	53,330	39,039	39,304	42,687	35,684	102.9
	벌크화율	86.4	87.5	87.9	88.9	88.5	
합 계	61,752	44,615	44,721	48,000	40,312	103.2	

〈표-8〉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천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p)
크링카	562	1,584	1,337	940	1,714
시멘트	623	1,240	3,661	3,945	3,016
합 계	1,185	2,824	4,998	4,886	4,730

* 주: (p)는 예상치.

'92년까지 근 20여년간 매년 우위를 보이다가 '93년부터 크링카의 비중이 시멘트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크링카 우위의 수출은 '96년까지 지속되나 '97년부터 다시 시멘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년에는 전체 수출 가운데 80.7%를 차지하였으나 금년들어 63.8%로 시멘트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시멘트 수입국인 미국, 일본, 대만,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대신 주로 크링카를 수출하는 토고, 중국, 아이보리코스트의 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크링카 수출을 포함한 사별 수출실적은 동양 1,503천톤(-4.8%), 쌍용 2,710천톤(0.3%), 한일 4천톤(33.3%), 성신 182천톤(-39.5%), 한라 331천톤(9.2%)으로 동양과 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사가 잉여물량을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안사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 수급에 크게 기여하는 출하형태인 교환수출의 경우 쌍용과 성신 122천톤, 한라와 성신 60천톤을 합쳐 182천톤으로 전년의 301천톤에 비해 39.5%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수출은 포장시멘트보다는 기계장치에 의한 선적과 하역 및 대량수송이 용이한 벌크시멘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도 포장시멘트는 15천톤만이 수출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벌크 형태로 수출되었다.

한편, 국내공급 부족시 수급안정을 위해 들어오던 시멘트 수입은 '98년부터 내수의 침체로 줄었으나 전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한일대우 354천톤, 대한

〈표-9〉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천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p)
크링카		5	480	162	93
시멘트	2,989	178	135	518	990
합 계	2,989	183	615	680	1,083

* 주: (p)는 예상치.

636천톤으로 91.1% 증가하였으며, 크링카는 생산시설이 없는 대한에서 '98년말부터 수입을 시작하여 금년도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39천톤, 54천톤을 수입, 전년의 162천톤 보다 감소한 93천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표-9〉)

라. 재 고

대규모 장치산업인 시멘트산업은 생산능력은 일정한 반면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애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수요의 수준에 따라 재고의 변동폭이 커서 항상 적정재고를 보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년의 재고상태를 보면 전년말 시멘트의 이월재고는 1,297천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52,890천톤(수입 990천톤 포함), 수요가 53,016천톤(수출 3,016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169천톤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능력을 크게 밀도는 수요로 인해 필요량만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크링카를 합친 전체 재고는 비수기를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적은 2,300천톤 정도를 보유함으로써 재고관리에 애로를 겪는 일은 없었으나 연중 동절기 수준의 작업단축과 함께 생산시설에 대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포장시멘트를 취급하는 소비지의 역두, 하차장 재고를 살펴보면 11월말 기준 중앙 18천톤, 지방 16천톤을 합쳐 34천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7.2% 증가하였다. 금년은 1~11월까지 10월과 11월

을 제외하고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매월 전년의 70% 내외의 재고를 유지하였는데 이렇게 전년 보다 감소한 원인은 재고 및 물류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로의 시멘트 이송을 줄였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 수 송

'90년대 들어서 국내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시멘트 수송량은 '97년 60,865천톤을 운반하며 최고점을 찍은뒤 경기침체와 더불어 '98년에는 무려 21.8%나 급감하였지만 이후로 서서히 회복되는 국내경기와 맞물려 '99년 5.1%, 2000년 7.5%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금년들어 10월까지의 시멘트 수송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44,635천톤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측면에서 볼 때 시멘트 국내 수요량은 늘어나고 수출량은 감소한 가운데 금년도 시멘트 수송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통한 수송분담비가 전체수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전체수송에서 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8%에 달했다는 것이다.

해송을 제외한 철송과 육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97년 시멘트 수송량이 절정에 달했던때 육송이 수위를 차지하던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수송수단의 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금년도 철도운임과 육송운임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비면에서 여전히 선박이 타수송수단에 비해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수송패턴으로의 물량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작년에 비해 3.2%나 줄어든 수출물량까지 감안할 때 내수 운반물량의 많은 부분을 해송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도 시멘트 업계에서는 일부 신규 유통기지를 증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설비 및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송수단 노후화 및 수량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시사 용어 해설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지난해 연말 회사채 시장의 자금증대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도입된 일종의 시장보완장치이다.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들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 시행을 목표로 시작했다.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중 20%는 기업이 갖고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후 이 가운데 10%는 산은이, 20%는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고 나머지 70%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